

# 제사완의(齋舍完議)

생산기간2      朝鮮後期  
소장자(처)      경북 의성 아주신씨  
소장자(처)상세   신병철  
사료구분      고문서  
사료분류      허가·합의; 완의

해제 정유년 신분구(丁酉年 申賁龜)가 서문(序文)을 씀, 분구(賁龜)의 네째아들이 종계(宗契)를 만든 기록, 후대에 추록됨

완의(完議)는 종중이나 가문 또는 계(契) 등에서 제사나 묘위(墓位)·계사(稷事)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을 기록하여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아주신씨 봉주공파의 이 완의는 신숙범·숙보·숙연·숙호의 4형제에 대한 제사를 후손들이 잘 지켜 나가자고 약속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전체 1책 16장으로, 서문은 봉사손(奉祀孫)인 분구가 썼으며 종형제들과 더불어 선고형제(先考兄弟)의 봉사를 위하여 쓴다고 하였다.

작성시기는 1717년(숙종 43, 정유) 10월 그믐날이다. 그 다음에 「영원(鶺原)」이라 하고 봉사 대상자인 숙범 등 4형제를 기록하였다. 영원이란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로서 형제가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형제를 향연하는 시에 쓰였다.

이어 실질적인 제사를 위한 약속을 절목으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네 집이 돌아가며 행하며, 제답(祭畓) 소출이 많게는 40석에 이르니 뒤에 그 윤차(輪次)를 따라서 제수로 쓰고 1위(位)에 2석에 한하여 출급하는 일, 유(油)·청(淸)·면(麪)·미(米)·과물(果物) 준비, 정월 8일의 제사는 고비(考妣)의 제사와 겹치므로 기본 2석에다 1석을 더하는 일, 제사에 맞춰 출급하지 않으면 궁한 집은 미리 끌어다 쓰는 근심이 있으므로 유사(有司)가 헤아려 지급할 일, 유사는 매년 개체(改遞)하며 네 집이 돌아가며 맡을 일, 기본 2석을 출급하고 남은 곡식은 모아두었다가 정 쓸 일이 없으면 논을 사서 뒷날을 준비할 일, 혹은 남은 곡식은 곡식으로 술이나 제기를 사다가 네 집이 돌려가며 내어다가 쓰게 하고, 상사(喪事)시에는 형제간의 우의가 있어야 한 즉, 양상(兩喪)에 한하여 5석을 출급하고, 자손의 상사에는 허급하지 않을 일, 그리고 유사(有司)가 부지런하지 않을 때는 일가가 회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한다는 내용들이다.

그 뒤 1758년(영조 34, 무인) 12월에 성구(聖龜)가 추정약조(追定約條)를 더하여 종계(宗契) 창설 당시의 절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하였다. 따라서 처음의 9조목이던 것이 20조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후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선현 봉사에 해이해지는 문중원들의, 기강과 유대를 다진다는 의미가 깊었다. 추정식에서 유사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여 잘못이 있을 때는 중벌로 다스린다는 조목이나, 자손이 신병이나 산사(産事)외에 이유 없이 선대 제사에 불참하면 태벌(笞罰)로써 다스린다는 조목 등에서 그러한 면모를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모대(帽帶)나 남녀 예복은 종가에 두되 친족계원이 아니면 비록 외손 집안이라도 일체 빌려주지 말도록 하였다. 따라서 계원인 경우는 계중(契中)에서 그 사세를 판단하여 빌려주되 대여료 5전(錢)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서 보듯이 18세기 이후의 친·외족간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대한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齋廟舍完議序

按記曰大事在祀倘非奉先  
之節孰長其息愛然而人  
莫不欲盡心辦供致其如在  
之誠而家貧物薄率多不  
稱其情者可悲也夫昔

此序之文其意甚明  
凡欲盡心辦供者  
必先盡心於心  
心誠則物自足  
物足則事自成  
事成則祀自隆  
祀隆則德自遠  
德遠則名自彰  
名彰則功自著  
功著則業自茂  
業茂則家自興  
家興則國自強  
國強則天下自平  
此序之文其意甚明  
凡欲盡心辦供者  
必先盡心於心  
心誠則物自足  
物足則事自成  
事成則祀自隆  
祀隆則德自遠  
德遠則名自彰  
名彰則功自著  
功著則業自茂  
業茂則家自興  
家興則國自強  
國強則天下自平

先人不當日念及家事而唯  
日致者不越乎奉先思  
孝自遠代而逮及祖考  
墳塋盡力助殫力既盡堅  
石至於家間躬自排置  
者此自在於奉先一大事

而已嘗與諸父嘔息而曰家  
事允雖無傷哉之歎而  
家子孫豈此日不真及於供祀  
如貧而無財不免苟且之  
弊則非獨為子孫之大憾  
後然之靈其肯歆諸不如

趁其不憂之日顏自經紀  
率以為常祭品既已定之  
式又聚穀物年々循環取  
息買貝水曰幾乃至步如斛落種  
嗚呼先人不遺之孝子  
其永為子孫之維則歎不

肖子責龜昔侍膝下承  
命糗冊使筆人書諸諱  
未及書節目不孝平遭終  
天之痛至今目之手之不  
覺五內如崩先人之志  
庶亘適追勿替引之故使

從身幹事者創立庫舍  
以貯穀謹書曰元議節目如

左

歲下酉子孟冬晦日不肖子責

龜泣血謹識

鳩原

申叔範

國模  
戊子

申叔簠

器方  
己酉

申叔筵

子直  
辛亥

申叔簠

子和  
壬子

際

完議節目

一忌祭曹墓祭乙四家輪行是字  
矣祭留所出多至四十石後地  
其輪次需用是卷一位限二  
石出給事

一油清麵米果物各備以給

則自有起闡之端二石中各  
自辦用事

一三代祭祀以此分用是字  
矣正月八日祀事考妣位  
諱日同不可以二石辦供  
加給一石事

一祭差前期出給則窮家  
必有引用之患臨時有  
司量給事

一有司周年歸一政是守矣  
四家輪掌多子孫之家  
名者隨次輪掌事



一限名出給則必錄六七名  
答其錄別定有司次知  
隨便會議立石齋舍正  
諸為先事出用日字字  
如無用安則名當推移  
買留以待後用事

一或以錄答買置其金目非  
四且如可四家輸行辦供  
時出用是遣行祀後有司  
即：省檢入存事

一死喪之戚兄弟孔懷則  
四家既設盛事又有錄

谷不可無，意難四字，根  
兩喪出給五石，為道至，  
子孫之喪，則分與得事給  
一有司有不謹之端，則一家  
會議，隨輕重施罰事

### 追定約條

歲戊寅十二月舍後第  
聖廟定式

宗契之創設，厥惟久矣。四家子孫其  
麗多而至於供祀，先代得免祭  
需之苟艱者，豈不由先父兄兄  
弟勤勞經紀為其祭羞之功歟？  
宜吾子孫適追先志，永世勿替。而  
數年以來，各汨窮居，莫念宗契。

為任為自爾頽情方檢為事多疏  
透祭差浮費之事不一而足故昔  
日宗契今且貌樣多先父兄儂  
然之靈其肯曰有後乎諸從兄皆  
已零落吾今屋長死日不多茲  
與羣子等訴此快恨之三五更相完  
議使吾宗契庶期復古而伯漢之

所宜節目前有未盡之言如筆  
削舊祭續之別件數十餘祭如  
左

一忌祀墓祀四家輪行而分給祭  
是實忌祀則家四辦供之祀非必致  
精不在豐約而至於墓祀餼餉之物  
畧少則山下村澤分饋之時未竟各聊

之禁如忌祀則每位貳拾斗墓祀則  
貳拾伍斗或出給是字乃計量打作以  
乃之數各位必與是字數後如有剩餘  
是去亦隨數加給事

一真如麵末泡太果物價難以各給  
元之斗數中並為辦備事

一三代祭差依此分用是矣正月八日

祀事 考妣位諱日同加給伍斗並  
貳拾伍斗出給是違如有剩餘以此  
酒數加給事

一辦供祭物如有不謹之事行祀後辦  
供如有司當為取責事

一祭差前期出給則在家必寫引用  
之書有司臨時出給事

一父兄四兄弟考妣位能祭者各給  
拾伍斗或之矣如曾剩餘加給伍斗  
並貳拾式斗出給奉

一四家子孫比自至貧窮其在宗契  
之禮不可忽然若遭喪喪及在外  
喪祭葬事時出給拾伍斗之矣葬事  
若值窮節而斗地中元無出穀則

不可出債以給惟待大小辭追給元  
矣四兄弟子與孫行外更勿許給奉  
一四家子孫中若有得科之幸是去和  
無論代遠子孫至於會約貳拾斗或許  
給奉

一四家親舊中若有喪及及新恩未  
成之奉則曾以契穀面同議定以祭

差由以此不足此後則修費之事一切隨家  
一一家中若或絕祀則曾有稱貸祭穀  
仍存祭差以有祭需苟艱之至此後則  
切勿許貸之多有司拘執類情私自開  
庫之去扣駁也施四則事

一祭事以等輪行其矣惟當上社輪行  
是也勿以顯存為或否祿有因毀工且亦

以祀事輪行例為之也

一畧平祭水田畝在遠矣而以詳細者  
檢部示以岷及在泰山之安水田已良移

買本坪是遺改修水田畝在且橫中事

一祭差分給之際斗數與不廣之數多

有以備是事伊時有司在四則施行

在書未雨穀如常持不有司事

大坪省  
詳買課  
遺故刀割  
陸書

一並作祭當者兩班此常游不勤並  
作不出不實故其當品厚為益論  
道宜宜或為數年每橫上其主于  
此虫換坐換而此法為數者這之出捧  
而如有不一者奈與力農之人事

一祭當種子種作時仍給于住者則其如  
貧窮之人預為私用是過至於移秧時

東西取秧太晚移種以有出之不實  
自今種子勿給住者而受入庫  
中是則可注秧時自有因者檢量給而  
荒種乙良切勿注秧事

一羽谷星谷兩次至祀時或有此信之  
人為種種給祀此但大失祭禮有  
用子孫之益人此後則批宜而送之人俱

三獻行祀之儀。厥制雖遠，祿以形勢之未終。云者。已出近文。云祀。既且。不祭與事。

一曰家私。墓皆在三代。云以故。先代至祀。正四家各曲。其私。云因在。文之。事。以。祭。事。輪行之。類。於。至。祀。莫。如。由。此。之。故。私。至。子。孫。不。祭。於。各。家。祀。其。云。則。各。不。堪。

積年不以省。至者。頻多。無不。創。祭。祀。既。重。一。家。之。每。年。必。修。不。如。四。家。之。按。年。輪。行。自。今。為。始。五。家。墓。在。祀。四。家。輪。行。以。事。事。

一年少子孫。無端不祭。先代祀事。源甚。不。可。此。後。則。身。病。產。事。亦。如。自。在。所。不。祭。者。行。祀。後。指。在。撰。數。祭。一。應。是。



詭笑四列之跡察他之人多竊其家起

曉車茶而可謂致之也此後則記事前

一曰諸會案心之入之為

一有司肉身相逐是美不受傳亦如會

備苦中汁物強書各錄自今為始有

司進位時推免始存雜物一傳

與子新任是也傳與記之名為修正之

水可舊任不傳之物新任不能為察見其先

去而以美之物伊時有日物為河如事

一斗地不風尾家武間材木則本宗宗家行廊

而自其中國村撰出買尾蓋之衣者其申之

物身有慘漏毀破矣矣負回力將理

一帽者及男女禮扶若風宗家而矣負親

為中身有請借之人則不議於其

年多以其類情任自出於至於其

如日之能殊玉級掩自此以法其

身非外緣之家切勿借之是亦美請

信之人美聞其樂中之聞其事如不心已好

借之志和男之如已受其後各任其志是亦某

人之志不結前習潛白信之志亦其志已為該

智可急接其出信人之跡其後一而嫁其後

男之體如各志也如有數信其志也其志亦用之

正正為改信也

新在紫山成誘八舞去為其後其後其後

黑石位在於三山即其先三代八舞之也也

四山松樹素草他不系端而惟猶位在於一山因

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

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

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

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

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其志亦

相克成統洞中法民付之為老完機使後

# 齋舍宗卷

不飲酒茹母茹慈飲了端為孝

歲甲子十月旬日祀臨重仁德書

大維以風冰焚為乞志亦借去之人

一日不用反貫效矣

若有取債錢者穀則本歸一也

病一節刻會一毫取貸辨過之

義一節

